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北中情勢와 英米의 態度 —今後國際問題化乎—

一

北中自治問題를 둘러싸고 月餘來 北中에서 變轉無常한 場面이 展開되어 今日까지 그 歸趨를 보지 못하고 잇는 것은 世人 周知의 事實이나 입때껏 이 事實에 全然 沈默을 지키고잇든 米國과 英國이 거이 同時에 聲明及言及한것은 注目할 일이다。米國務長官 헐氏는 매우 抽象的인 말을 써서 발숫이 日本이 北中自治運動에 參與한것처럼 表明하지 안햇스나 『北中數省의 變調及一般形勢에 重大한 變革을 招來코저 하는 努力이 只今 繼續되고잇는 事實 及 이것을 阻止코저 하는 傾向이 亦是 繼續되고잇는 事實』云云 한것은 日本과 南京政府의 行動을 指摘한것이 아니며 特히 『余는 多大한 關心을 가지고 國際條約 遵守의 必要를 痛感하는 念을 다시금 反覆치 안흘수업다』고 結한것은 中國의 主權을 擁護함을 目的한 九國條約의 締約國들의 注意를 喚起한것이 아닐가。또 英호어外相이 下院에서 某議員의 答辯에 『日本政府는 이事實을 否認하나 現地의 情報는 日本人이 北中自治에 關與햇다한즉 北中과 利害關係기픈 英國은 重大關心을 가지고 보며 日中兩國이 善處할것을 希望한다』 한것도 또 한 一種 對日警戒로서 注目할 事實이라 안흘수업다。

二

英米 特히 米國이 中國問題에 對하야 聲明 乃至 警告를 發하기는 한두번이 아니다。지난 滿洲事變때에 『一都가 落하고 一城이 落할때마다 日本에 對하야 警告를 發한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저 有名한 스팀손 原則의 聲明은 實로 日米間에 重大한 危機까지 釀하게되엇섯다。그러나 日本의 聯盟脫退 까지라도 不辭하면서 斷行한 滿洲事變工作은 미침내 米國及聯盟의 如何히도 할수업시 되고 말엇든것이니 그것은 米國及聯盟에 對日戰爭 乃至 經濟封鎖의 實力이 업섯든 까닭이다。今次 米國의 發한 聲明이 비록 日本을 指稱하야한것이라 할지라도 筆者의 滿洲事變때 모양으로 日米外交의 危機까지는 이르지 안흘것이오、따라 英米의 聲明으로 北中事態에 어떤決定的 變化를 招來하리라고 생각키는 어렵다。何故오하면 北中自治運動은 滿洲事變과 가티 大規模의 行動이 아니오、米國의 抗議가 滿洲事變에 何等 決定的 變化를 주지 못한것을 米國은 詳知하므로써다。

三

그러나 北中問題를 中心으로 한번 國際問題가 이러날것은 거위 想像키 不難하다。왜그러냐하면 事實은 如何間 中國國民政府는 在外使臣으로 하야금 이미 北中問題를 들어 九國條約違反이라하야 各 條約國에 訴케 하고 잇스며、또 倫敦에 開催된 軍縮本會議가 過去 中國問題를 아울러 協議한 華府會議와 마찬가지로 極東政治問題가 當然히 이러날것이므로써다。이미 太平洋防備問題로써 日米間에 前哨戰이 開始된것은 當面의 消息을 瀨知할수잇지안흔가。勿論 日本은 倫敦軍縮會議가 政治問題에 觸하지안흘것을 前提로 이에 參加한것이어니와 軍縮問題가 單純한 軍器의 制限問題가 아니오 外交、國防等諸問題와 緊密한 關係가 잇는以上 어떤 機會로해서 中國問題 特히 現在 展開되고 잇는 北中問題가 어느程度로 議題에 오를것도 또한 全然 想像못할일이 아니다。이런點으로 보아 北中問題는 今後 國際問題化할 可能性이 充分하다 할수잇다。

汪精衛氏의 容態惡化 相當히念慮될病態

【上海五日發電通】佛租界私邸에서 靜養中인汪精衛氏는 五日朝來 容態惡化되여 側近者의談에依하면 狙擊된傷口는 最近에寒氣로 아푸기始作하야 體溫이 上昇하고 또持病의膽石病이 再發하야 背部의傷口도 아직全快되지못하야 相當히 憂慮될만한病態라한다

北中問題에關한 陸軍의方針決定
參謀本部喜多課長携行渡中
現地官憲에提示連絡

【東京電話電通】陸軍에서는北中自治問題의 進展에伴하야 軍으로서의 最後的 態度方針에對하야 外務、海軍兩省과 連絡하야研究를 進行코잇섯는대 五日드듸여 그決定을 보앗슴으로 六日參謀本部支那課長喜多大佐로하야금 右方針을 携行코 北中에派遣하야 現地官憲에 提示함과同時에 現地와 中央과의聯絡에當케하기로하얏다 右方針은 北中問題의 今後에處하는 軍의方針과 企圖를 具體的으로 또는詳細히 定한것으로 그骨子는

一、北中自治에 對하야는 南京政府의 一切의干涉은 排除하야 北中民衆의 要望에 基한 北中實力派의方針에만依하야確立해야할것을 待望함은 勿論 自治政權確立後도 絕對로 中央의支配及 干涉을 밧지안흘것이 日滿中 三國의將來를爲하야 最大緊要事이다

一、右에反하야 南京政府가 어데까지든지 干涉을하고 又는 內面的攪亂을 企圖하는等 北中民衆의 要望에副치안는境遇에는 日本政府로서는 臨時臨所에 適當타고 認定하는 實力發動을한다

一、北中情勢及 日本現地軍部의態度에 對하야 九個國條約違反 其他 여러가지의 批評及論議가 잇는模樣이고 또 今後 一層論議가 일어날 豫想되나 이것은 根據업는 迷論謬說로 日本政府로서는 이에 對하야 始終一貫한 態度를 取하야 所信한바에 向하야 率直히 邁進한다

는等으로 六日 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天皇陛下께 拜謁之際에 右方針에 關하야 言上함이 잇섯다고 傳한다

北中問題解決! 何宋妥協遂成立

【北平六日發聯合】何應欽氏는昨夜以來 비로소 宋一派의 自治主張에 妥協的態度를 表明하야 南方으로부터 携行한 對日根本六大方針과 宋哲元氏의 計畫한 自治形態에依한 北方政務委員會案과의 折衷案作成에 着手하야 蕭振瀛氏와 徹宵協議를거듭한結果 中央과 宋哲元氏間에 겨우 妥協點을 發見하야 今後는 이案으로써 北中의治安產業方面에關係잇는 日本의諒解만을 어케되엿다 그리고 六日朝 何應欽氏와會見을 終了한後 蕭振瀛氏가 天津에 急行한것은 何蕭合作對案을 日本側에 提示하고 그承認을 求하기爲함인데 何應欽氏北上後 北中問題交涉은 겨우 今日부터 本格的으로 進展되게 되엿다

北中對策內容

【北平六日發聯合】何應欽、蕭振瀛合作協定對策案은 大要左와如한內容이라고確聞된다

一、內蒙自治委員會와 同樣의 北中自治委員會를 組織할것

一、自治長官에 宋哲元氏를 推擧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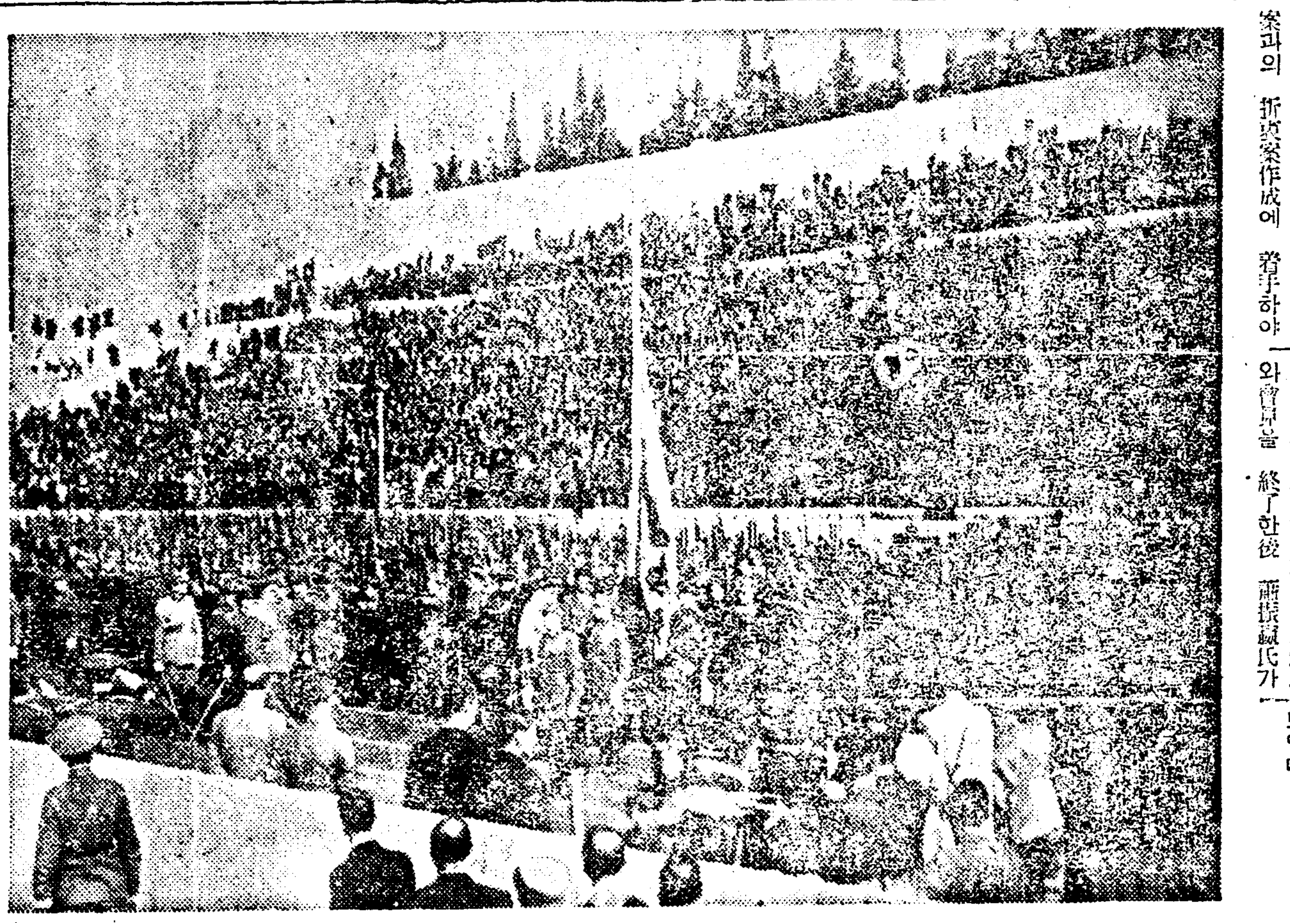
一、委員會는 防共에 關하야 日滿兩國과 軍事同盟을 締結하는程度의 權限이有함

一、委員會는 北中에 銀國有令適用을 除外制限할수잇는 程度의權限이有함

一、委員은 全部北方派에서 選定하고 中央은 單純히 그報告를 接受하는程度로함

一、委員會는 北中各當局者뿐만아니라 北中民間有力者多數를網羅함

一、右는모다 原則的의것으로 日本側과 折衝할必要가잇고 名稱細目等은 아직 全然未決定이다



希臘의王政復古 …… 先帝게올기스三世를 마지하야 王政復古를 實現한 希臘帝國은 最近 아데네에 朝野名士가 參集하야 盛大한 國旗揭揚式을 擧行하엿다 寫眞은 아데네國立大競技場에서 擧行한 莊嚴한 揭揚式

國民政府改造斷行 行政院長에蔣氏
六日一中全會議에서決定發表
蔣介石氏遂實權掌握

【南京六日發電通至急報】國民政府及中央黨部의改造는 別項과如히 發表되엿는데 이것으로써 蔣介石氏가 國民政府及黨部의實權을名實共히 그掌中에넣게된것으로 蔣介石氏 多年의念願인獨裁政治가 마츰내實現을보게되엿다 (寫眞은 蔣介石氏)

【南京六日發電通至急報】六日一中全會에서決議한 國民政府改造는 左와 如히決定發表되엿다

國民政府主席 林森(留任)
同 行政院長 蔣介石
同 立法院長 孫科(留任)
同 司法院長 居正(同)
同 監察院長 于右任(同)
同 考試院長 鄒魯(同)
中央執行委員會常務委員會
主席 胡漢民
副主席 蔣介石
中央政治會議
主席 汪兆銘
副主席 蔣介石

外交部長 張群氏로決定

【南京六日發電通至急報】國民政府外交部長은張群氏로決定하엿다

朝銀滿銀利率 四分五厘로統一

【東京電話聯合】滿洲國中央銀行과 朝鮮銀行과의 業務協定中에는 從來兩銀의 定期預金利率에 五分 朝銀은四分으로되엿든바 今後兩行은 모다 此를 年四分五厘로하기로 統一하게되엿다

明年度朝鮮豫算 三億一千七百萬圓
計數整理後藏省廻附

【東京電話電通】拓務省所管 外地特別會計豫算案은 拓務省의査定을 終了하고 計數整理를 마친다음 六日午後 大藏省에 廻付하엿는데 그內容은 左와如하다(單位千圓)

▲歲入 三一七、七六三
(內譯) 經常部 二六六、八九二
臨時部 五〇、八七〇

▲歲出 三一七、七六三
(內譯) 經常部 二三三、六六八
臨時部 八四、〇九四

그리고 主要한 新規事業은 左와如하다

一、鮮滿拓殖會社補助費 五六六
一、農村經濟更生施設費 一、一六一
一、初等教育擴充費 七二六
一、道路修築費 一、一五〇
一、砂防事業費 九一四
一、電信電話施設費 一、八七五
一、漁業開發費 一一四
一、土性調查費 一一七
一、資源其他調查費 一三一

그리고 臺灣總督府明年度豫算總額은 一億二千百三十二萬七千圓이다

默殺外에 無道!
헐米國務長官의聲明에對한 外務省當局見解

【東京電話電通】헐國務長官은北中의 時局에 關하야 五日聲明을 發表하야 警告的인 意見을 表明하얏는데 右에關하야 外務當局은 極히 冷靜한 態度를보이고 左와如한 意見에서 全然問題視하지안는다

一、헐國務長官의 聲明에 關하야 아즉 公電에 接치아헛으나 이것은 日本을 對象으로 發表한것이 아님으로 日本側에서 積極的으로 同答할 必要는업다 日本으로서는 默殺의態度를 取할外에 다른道理가 업다

一、同聲明의 內容은 要컨대 條約義務의 尊重及 中國에잇서서의 利權의 尊重을 眼目으로한것이며 이것은 國際法上의 一般的原則을 闡明함에 不過한것임으로 지금에 와서 새롭게 問題視할 必要가업다

北中事態의推移 緊密注目 헐米國務長官談

【華盛頓五日發電通】헐國務長官은 北中問題에關한 關心의 程度에 對하야 記者團의 質問을 受한後 左와如히 語하얏다 北中에는 米國人이 極히 多數하고 又若干의財產도 同方面에 所有하고잇고 또重要한 商業的 文化的活動이 米國人에依하야 行하고잇는故로 米國政府는 特히 國際條約上의關係만이 아니라 特히 緊密한 注目을北中事態의 推移에 對하야 拂하는바이라

에軍總攻擊을準備

【마칼레四日發聯合】前哨部隊에서온 報告에依하면 에디오피아軍은 最近 하일레·셀라시에一世의 近衛兵을 先頭로 續續大部隊가 北進하야 마칼레타카제의 前線에 集結하고잇는데 戰線全地方의 整備强化를 待하야 마츰내 에디오피아軍의 總攻擊은 目前에 切迫되엿다고 解釋된다 一方 伊太利士民部隊는 四日 텐비엔地方의要口 카참을 占領하고 만리엔을 中心으로한 에디오피아北軍에對하야 包圍陣形을 거이 完成하엿다 에디오피아軍必死의 總攻擊도 接近되엿다는 報道에 伊太利全軍에 激戰할意氣가 猛烈하야 戰機마츰내 完熟되엿다

佛首相、伊大使에게 新和協試案提示

【巴里五日發聯合】佛國首相라발氏는 四日夜 駐佛伊太利大使 체룻치氏를 外務省에 招致하야 英佛兩國專門委員의 起草로된 和協試案을 提示하고 伊太利政府의 考慮를 要請하얏다 右要請에 對하야 체룻치氏는 本國政府에 請訓한다는旨를 述하고 退去하얏다고 하는데 뭇솔리니首相도 諸般의 情勢에 鑑하야 新試案을 基礎로 爲先和協工作에 드러가지안흘가하고 推測된다 和協試案의 內容으로 傳하는것은 다음과갓다

一、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政府에對하야 바다의出口를 附與하야 에리토리아地方의開港及 同港에至하는 廻廊을 割讓하고 에디오피아政府는 右廻廊에 아디스아베바市로부터 同港에至하는 鐵道를 敷設함을得함

一、現在의 伊에國境線을 變更하야 北方에서는 에디오피아政府는 아도와、아디그라트地方을 包含하는 티그레州의一部를 伊太利政府에 割讓한다 但아디그라트는 에디오피아帝國祖宗의 聖地인 點에 鑑하야 依然에디오피아政府의 領有로함

一、南方에서는 에디오피아政府는 오가덴全州를 伊太利政府에 割讓함

一、東方에서는 東經四十度以東 다나킬地方 하랄州의 一部를 包含하는 地帶를 伊太利政府에 提供하고 伊太利領에리트리아 소말릴란드 兩植民地를 서로連結함

一、伊에兩國政府間에 和協案에 異議업는 境遇에는 兩國政府는 直接當事國으로서 二個國條約을 締結함

人事·集會

▲李泳贊氏(宜川實業家) 滯京中今夜十時車退京
▲鄭烈模氏(金泉高普校長) 今番同校 落成兼 崔松雪堂銅像除幕式人事次 來京
▲石村實氏(鐘紡서비스 株式會社專務取締役) 開店人事次來社

何氏會見要求 日本側斷然拒絕

【北平五日發電通至急報】何應欽氏는 四日來 거듭日本關係方面에對하야 會見을申請하여왓스나 日本側에서는 北中自治問題는 何應欽氏와의 折衝에依하야 解決될 性質의것이 아니라는데서 斷然此를拒絕하엿다

호아英外相渡佛 伊에紛爭最後處理

【倫敦五日發聯合】英國外相호어氏는 밧시타ㅡ드次官을 帶同코 六日夜或은 七日午前에 倫敦을 出發하야 巴里에 向하기로 되엿다 巴里에서는 라발首相과會談하야 伊에兩國間의 紛爭處理의最終的協議를 遂行할 豫定이다 그리고 更히 호어外相은 七日夜 巴里를 出發하야 산모릿스에向하는대 밧시타ㅡ드次官은 數日間 巴里에 滯在하야 佛國政府當局과의間에 獨逸政府의 再軍備問題를 討議할 豫定이라고推測된다

夕刊後市況 六日

◆大阪短期◆

	後引	高値	低値
帝人新	七三〇〇	七四三〇	七三〇〇
鋼管	一〇五六〇	一〇六六〇	一〇五三〇
日鑛	九九六〇	一〇〇〇〇	九九六〇

◆大阪短期氣配◆
大新 一〇二三〇 (一〇低)
鐘新 一五七五〇 (五〇低)
日產 七二一〇 (一〇低)
東新 一七二五〇 (三〇低)

◆橫濱生糸後引◆
當限 八八四〇 先限 八七八〇

◆福井人絹後引◆
當限 五七四〇 先限 五八四〇

崔松雪堂女史 銅像除幕式所感 (三)
一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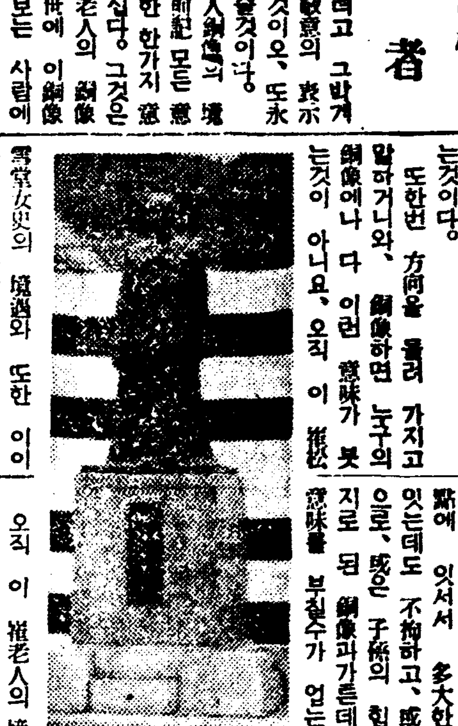
大槪、銅像은 무슨때문으로 建立하는것이냐? 換言하면 銅像建立의 意義가 어디 잇느냐? 나는 이意義問題에 對해서 말로 드른 일도 업고、冊으로 본일도 업다。그러나 崔老人銅像除幕式場에 안젓는 동안에 저절로 떠 오르는 여러가지 直感을 土臺로하야 銅像建立의 意義를 생각해 보니 그것은 이러하다。여러이 돈을 모아서 한분의銅像을 建立하는것은 勿論 恩人에게 對한 報答의 意味도 包含되어잇을것이다。이 崔松雪堂女史의 境遇에 잇서서는 金泉高普財團關係者、教職員及學父兄이 發起의 中心이되여서 銅像을 建立한 모양인데、그이들이 崔老人을 爲하야 銅像을 建立하는데는 想必、除幕의 意味가 업슬수업는것이다。그러고 그밧게 또한後人에게 對한 敬慕의 表示라는 意味도 잇슬것이오、또永久紀念의意味도 잇슬것이다。

그러나 이 崔老人銅像의 境遇에 限해서만은 前記 모든 意味보다 다른 特別한 한가지 意味를 더 부치고 십다。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老人의 銅像을 通하야 百代千代에 이銅像이 傳하는날까지 보는 사람에게 對하야

『당신네들도 나와 가티 子女敎育을 爲하야 機關을 만드시요。』

라는 活敎訓의 씨뿌리는것이 되게하는 意味를 부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銅像을 보는 사람은 現在及將來의 누구를 勿論하고 『나도 崔松雪堂老人가치 되고 십다。』 하야 社會奉仕心을 이르키는 刺戟劑로의 意味를 부치고 십다는것이다。

또한번 方向을 돌려 가지고 말하거니와、銅像하면 누구의 銅像에나 다 이런 意味가 붓는것이 아니요、오직 이 崔松雪堂老人에 限해서만 이런 意味를 부칠수가 잇는것이다。現在、朝鮮에 잇는 예에사람의 銅像의 例에서 보는 모양으로 確實히 銅像까지 建立할 社會的意義가 잇는가? 또는 不朽의 價値가잇는가? 하는 一點에 잇서서 多大한 疑問이 잇는데도 不拘하고、或은 金力으로、或은 子孫의 힘으로 억지로 된 銅像과가튼데도 이런 意味를 부칠수가 업는것이다。



오직 이 崔老人의 境遇에 限해서만은 그일은 秦始皇、나폴네온의 일과 달라서 發心만하면 누구나 實行할수잇는 일이요、또한 아모편으로 보나 이 銅像建立에 對해서만은 一點의 疑雲이업고 一片의 異批가 업는것인故로 後人誹謗의 目標가 되지 아니할것이다。그러기 때문으로 오직崔老人의 境遇에 限해서만 또는 이 老人과가튼 사람의 境遇에 限해서만 活敎訓的意義、刺戟劑的意義를 부칠수가잇다는것이다。

이와 關聯하야 한가지 더 생각되는것은 崔老人은 그의事業價値에 比하야 社會의 待遇를 今日까지는 퍽 적게 바덧다는 一事다。그原因을 말하면 老人의 事業地가 京城、平壤等地와 달라서 比較的 사람의 注目을 끄을지 못하는까닭도 잇슬것이오、또는 남은 針小棒大的의 『메가폰』가튼代辯者도 두는데 反하야、崔老人만은 그가 女子이면서 同時에 周圍에 代辯者를 가지지못한까닭도 잇슬것이다。何如間、今番、除幕式場에서도 도리혀 朝鮮사람來賓側에 依例히 와슬것으로 期待되는 사람들이 오지안흔것을 보아도 崔老人이 아직까지는 그의事業價値에 比하야 薄한 待遇를 밧고 잇슴을 알것이다。그러나 이것은 崔老人그분을 爲해서보다 朝鮮이란 社會全體로보아 퍽 遺憾되는일이라고 할수밧게 업다(完)

寫眞은 崔松雪堂女史銅像

農林校長家에火災 一族六名이燒死

河野校長會議出席으로免禍

六日江界邑內에慘事

【新義州支局特電】 엿새날 오전여섯시 강계농림학교(農林學校)교장 하야룽삼(河野龍三)씨의 집에서 불이이러나서 가족다섯명이 불에타죽고 또 그집에 묵고잇든 평북(平北)토목기수 횡지(橫地)는 화상을 몹시입어서 입원하여응급치료를 바덧스나 가튼날 오후일곱시십오분에 죽고말엇다 그리고 교장 하야씨는 교장회의에 참여차로 신의주(新義州)에와서 잇섯기때문에 요행히참화를 면햇다

燒死者一家族은 全身에點點創痕

强盜一黨이襲擊하야負傷?

警察은犯人을猛搜查

【江界支局電報】 륙일오전여섯시에 강게읍내(江界邑內)농림학교 교장 하야룽삼(河野龍三)씨의관사에불이나서 그가족일곱명이타죽은 일이잇섯는데 그원인에대하야 조사한결과 이는흉한들이 침입하야 살해하고 그흔적을업새기위하야 불을지른 잔인한범행인것으로 판명되엿다 아츰일곱시 기상나팔을불기위하야 여섯시반경에 등교한생도가 맨처음이것을 발견하고 동리를깨여서 모여드럿슬때에는 겨우옷방한간이 남엇슬뿐이엿다 그방문을 박차고드러가자 몽롱한연기속에서 피투성이가되여 신음하는 하야씨의 아들 『요고찌』를 발견하고 끄집어낸뒤에는 더손을댈수가업섯다 압방을헤치고드러가자 거기는 그 누이동생 송강(松江)이 머리에 무수한상처를밧고 겨우 숨을이어가지고잇는것을 구원해서 두사람은 병원에 보냇스나 모다곳숨이끈허지고 남어지다섯 사람의시체도 불을끈다음에 끄집어냇는데 모다머리에 흉기로 어더마즌 흔적이잇섯다 죽은사람들은 말할마디업고 경찰은 도모지 단서를 엇지못하고잇다 흉기는 적어도 칼과곤봉과 곡괭이등 여러가지로 추정되는데 이점으로 보아서 범인은 여러사람이라고 지목하고잇다

강게서에서는 전원 총출동으로 혈안이되여 수사중이나 아직아모 수확도업다 이로인하야 이곳은 자못 물정이소연하다

밥먹고時計훔친 뻔뻔스런도적년

밥갑떼어먹고 시게까지 훔처간 밥갑지못한손님을 차저달라는 수색원한건──인천부룡강정(龍岡町)이십이번지 수인(水仁)려관 김옥분(金玉分)의집에는지난십일월이십칠일에 자칭경성필운동 팔십륙번지 강성녀(姜姓女)(三〇)라는 녀자가차저와서 나흘동안묵고잇든바 지난일일에 어데로나간후 종시도라오지안함으로 전주인은 수상히생각하야 방세간을 조사하여보앗든바 오십여원가치되는 팔뚝시게까지 그가가지고간것이 판명되엿다하야 륙일아츰 서류우편으로 부내종로경찰서에 강성녀를 차저달라는 수색원을 제출하여왓다

自動車轢人

오일오후 일곱시이십분에 시내 황금정이정목 길가에서도모에택시─운전수 김무득(金茂得)(二七)이가 자동차를몰고 황금정삼정목으로 다라나다가 길을가로건너가든 자전차에 부닷처 부상자를내엿는데 피해자는 시외안암리(安岩里)일백사번지 리명재(李明宰)로 전치삼주일의 타박상을 바덧다한다

農會技手가 賣棉農을毆打

斤數의相異로

【醴泉】 지난이일 오후한시경예천군농회건견장(醴泉郡農會乾繭場)에서는 면화(棉花)팔러오지람을 농회기수 하야모(河野某)가 구타하여 일장풍파를 일우엇다 한다 이제그 내용을 듯건대 전긔 피해자는 룡문면대저동(龍門面大渚洞)에 거주하는 박영회(朴永會)(三〇)로 면화를팔라고 면회공동판매장에 접수식엿든바 전긔기수의말이 엄일등급이라하므로 박영회난 혼자말로 올해엽어멀군을 덜어가지고 왓는데 한근이나 틀린다 하매 전긔기수는 낫분말을하면서 연필로 뺌을치므로 박영회는 분노하며 머리를 구타하여 길이 이센치가량의 상처를 내여다지 중앙병원(中央病院)에서 치료중인데 전치되기까지 약이주일을 요한다고한다

◇警備員後援袋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조선본부와 경성분회에서는 국경경비원 후원대(後援袋)를 모집중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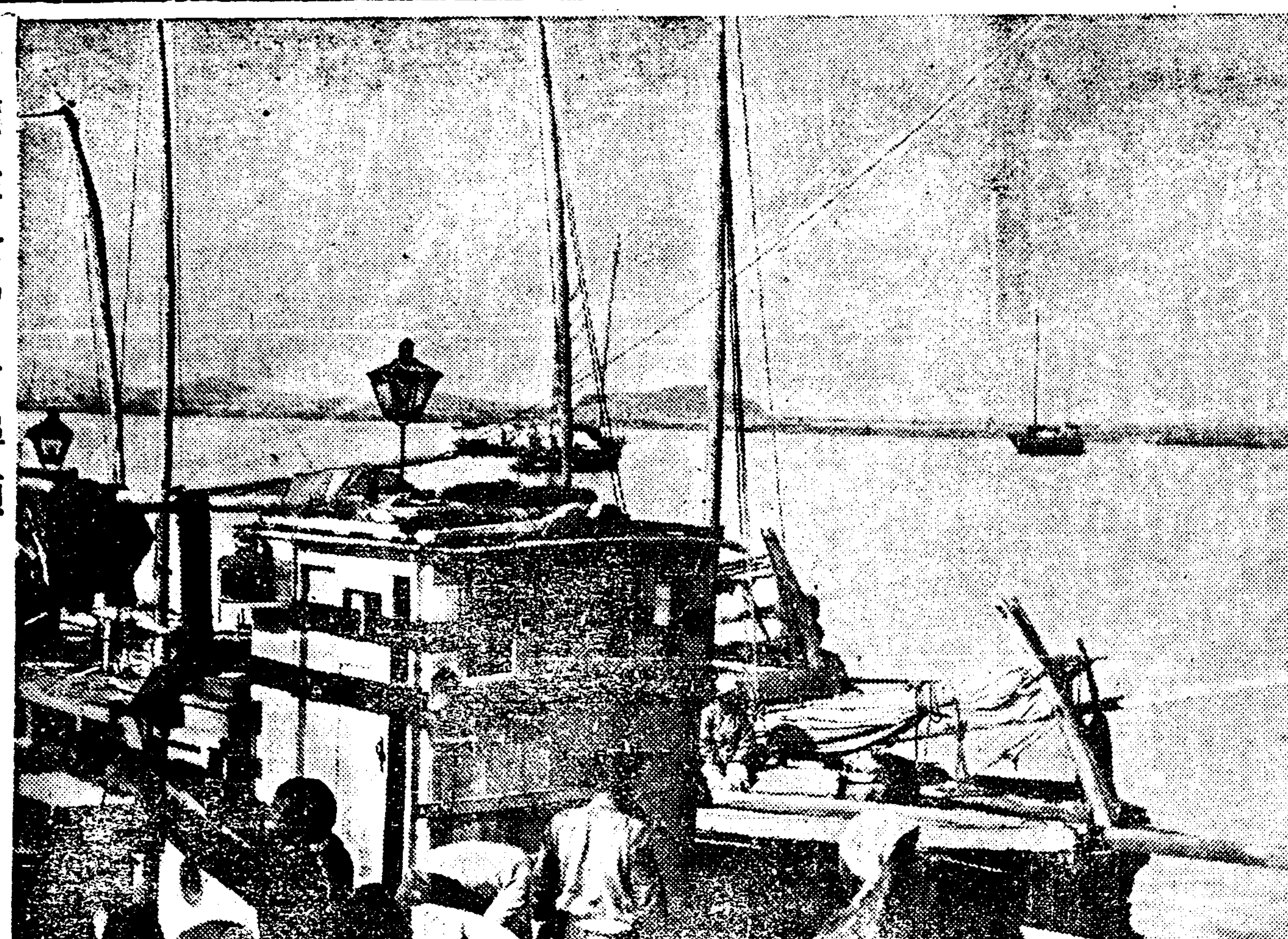
百五十件三千圓

五人賊團記錄的犯行

륙일 새벽에 시외 왕십리(往十里)부근에서 시내동대문서(東大門署) 정(鄭)산전(山田)두형사가 그전부터 지명수배하고잇던 큰도적인 시외신당리(新堂里)일백칠번지 전과오범의 리대정(李大丁)(二七)과 수철리(水鐵里)일백십팔번지 전과 이범의 김현의(金顯義)(二三)등 다섯명의 절도단을 일망타진후에 체포하엿는데 그들은 대개작년말에 서대문(西大門)형무소에서 가리 출옥하야 출옥하는 첫날부터 공모하야 절도하기 시작 하엿는데 경게가 엄중한 시내에서는 절대로 범행치안코 언제던지시외 일대의 부잣집을 침입하야 금품을 훔친것으로 지난달 말에 시외 보광리(普光里) 십삼번지 서덕만(徐德萬)의빈 집에 침입하야 의복과 귀금속등 일백오십원어치를 도적해낸것을비롯하야 그피해가 전후일백오십여건에 그피해액이 약삼천원에 달한다고한다

白髮은星星해도 글배워야살겟소

【京南】 시외한지면 보광리(普光里)에서는 지난 일일부터 이래 백발이성성한 오십이상의 로파 이십여명이 그곳 교풍회야학부(矯風會夜學部)에와서 『우리들도 이제부터 야학을할터이니데 잘지도해주시요 글을모르닛가 첫재자녀들을가르칠수가업구려』하고는 좁다란 야학실로 집행을집고 몰여들므로 그곳 야학부담임선생인 안중수(安仲壽)조남진(趙南振)량씨는 넘어도갑격하야 즉석에서 쾌히 승락하고 본시교실이 협착한 관게로 먼저어린야학생들을 가르키여 집으로돌여 보낸뒤에 로파할머니 야학생들을 가갸 거겨 부터 가르키고 잇다는데 그들은 매일가리 열심으로 배우고잇서 일반동리사람들은 물론 이웃동리에서도 그칭찬이 자자하다한다



쌀쌀한겨울埠頭 (작일인천에서)

賦課金에收穫皆納 貸付碎米로延命

오나가나발뻣고살수업는 營口移民同胞村最近消息

재작년과 작년이태동안 련결허서 생긴경남지방의 수해로말미암아 먹고살수업게된 농민들을 모집하야 총독부에서는 남만주 영구(營口)지방으로 대량이민을하야 농사를짓게하엿는데 그들이민들은 금년첨해 농사를짓기는지엇스나 처음 모숨기를해봇차마자 한동안가물어서 추수때에 수확이엄청나게도 적엇다한다 그러저럭추수를 해노코보니 그농장을관리하는 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에서는 토지대가년부상환(年賦償還)몫으로돈세(水稅)기타 별별비용등 여려가지명목으로 몽땅 다바러가지고가버렷다한다 그래서 그곳일천백여호동가의 륙천여명의 인구는 당장에 식량이결핍 하야동아권업공사 에서는 너무도 강박한 처지를 하여노코 보니하는수 업서서 쌔래기를 대부하야 그것으로써 근근히 호구를 하여가게 하는중이라한다

이제 경남김해(金海)지방에서 이사해간 농민으로부터 수일전에 그의 고향친척에게 보내온 편지내용의 일부분을 여기에소개하면 참으로 눈물을 자어내게하는 딱한형편이다 ·

『저는 고국산천을 리별하고머나먼 만주벌판으로 남부녀대로 이사해 온지도 어언간일년이되엿습니다 일년동안 땀을흘려가며서지은 농사는추수를 해노차마자 년부금이니 물세니무슨비용이니하야 우리들은 곡식한알도 이도먹어볼 여유도업시 모도다 바터가버렷습니다 그리고는 쌔래기를덴푸식 대부하야 그것으로써 근근히 연명을 하게합니다 돈이 이백원만 구처할수잇게된다면 이농장에서 이가만힌 농사를 짓지안코 달리단독으로 농토를구하야 농사를 지어서먹고 살어가기는 거정업시 될수잇겟습니다 어떠힘을 다하드라도 돈 이백원만 구처하여보내줄수업겟습니까(이하략)

십일월×x일

영구에서

리×x』배상

認可後不着手鑛 一般的으로團束

理由不徹底하면處分

총독부 광산과에서는 광구(鑛區)의 인가가 난지일년이되어도 채굴에 착수치안커나 또는 휴광을하고도 아모계출을 하지안는 광산에대한 광업령의적용을 엄중히하야 광구의정리를 단행하게되엇다한다

그리하야 광산과에서는 오는십일부로 전긔에해당하는 광산에대하야 각기십이월말일까지 통지를발하야 정당한 리유를 구신(具申)하야 계출하라고 엄달하게되엇다는데 십이월말일까지에 계출치안흐면 벌금또는 광업권의취소를 단행할터이라한다

市內"택씨"運賃 計量制로變改◇◇

四十錢을最低賃金으로하야 明年元旦부터實施

경성부내의 『탁씨』요금이 팔십전이라고하는것은 넘우 만타고해서 그감하여달라는 오래전부터 여러방면에서 논란잇는데 경긔도 보안과에서는 그동안 업자들의 의견도 듯고 또동경(東京)대판(大阪)등지의 현상도 참고한결과 경성시내에서는 시간제(時間制)와『미─터─』제중에 『미─터─』제를 채용하기로 되여 오는정월초하로날부터 실시하리라한다 그래서 방금 그세목의규정을 급히하고잇는데 이실시를압두고 업자측에서도 대표를 동경, 대판등지에 보내서 그곳의실상을 연구해가지고 오리라한다

이『미─터─』제는 대체로 최저료금은 사십전으로하고 그이상은 거리가멀어지면 멀어질사록 그거리를따라서 료금을주게 되리라고한다

이제도의실시와함께 곤난을느끼는점은 운전수가 일부러『미─터─』를 올린다든지 또는길을 멀리돌아가는것인데 이에대하야는 발견되는대로 면허를취소한다든지하는 엄중한 처벌규정을 꾸며서 방지하리라는것이다

엇잿든 새해초하로부터는 가까운데를 타는손님은 매우편하게되엿다

七十當年老母가 愛子屍體안고痛哭

【江陵】 사람의발자최가 드믄산중에서 시체를 껴안코 울고잇는 칠십당년된 늙은이의 애화─강릉군옥계면 산계리(玉溪面山溪里)산중에서 칠십당년된로파가 부란되어 악취가 심한 시체를 껴안고서 울고잇는이는 경북영천군 북안면송포리(慶北永川郡北安面松浦里)에 본적을둔 박씨(朴氏)(七〇)로서 그는 수년전 형제끼리 사소한일로 말다툼한것이원인으로 가정에 불화가 끄님업섯던중 그의 둘재아들 김비위(金丕渭)(二七)는 술그머니 집을떠나 간곳을 전연소식이 업슴으로 어머니 되는 박씨는자나 깨나 나가버린 그아들 생각이 간절하야 그도 다시 큰아들에게 말하지 안코 노자한푼업시 어듸가잇는지 전연알수업는 그야말로정처업시 그리운 아들을 찻는 하여업는길을 금년봄에떠나 이리저리 거러다니기를 천여리! 그리하야 지난십일월 하순경에 강릉군 옥계면 산계리(玉溪面山溪里)금광에 잇다는소식을 듯고 가보니 그는 아처럽게도 오랫동안 병마에신음하다가 사망한지 벌서십여일이 지난때인지라 이뜻밧게 소식을들은 그는 일시 혼도되엇다가 그리운아들이 무처잇는곳에가서 묘를 손으로파서 시체를 꺼내가지고서 울고 잇는것을 동리사람이 발견하고 그동리유지와 그곳면사무소, 주재소, 우편소등 직원들의 의연으로 하여주고 그로파는 한업는 우한을품고 뜻밧게 만흔동정을 힘입어 지난일일고향으로 향하야갓다

母性愛로回復된□□ 破綻된夫婦愛

警察에버러진人情劇

모성애의 힘은 위대 한것이다──엿새날 나제 부내룡산서(龍山署)엔 색파라케 젊은 두남녀가 나타나서 사나이는 함께가자거니 여자는 안쪼차가겟다거니하며 서로힐난을 해서뭇사람들의 진기한시선을 끄으럿다.

이이야기거리의 주인공인부부중 사나이는 충남공주군공주읍(公州郡公州邑)에서 어떠한극단을 경영 하는 리강필(李康弼)(二九) 녀자는 그의 사랑하는안해 김복순(金福順)(二三)以上全部假名─으로 불행하게도김복순에게는 올여름부터 유혹마의작난으로 자기남편이 경영하는 극단 단원중의 한 사람인 박모(朴某)(二二)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자 남편되는 리강필의 눈을피해서 틈틈이 불의의 관게를 매저 나려 오다가 두사람은 점점 떼이려야 떼일수업슬처지에 달햇스므로 오래동안 두고 서로공론한끄테 눈알의가시인 리강필을떨처바리려면 대로몸을피하여 숨어사는것이상책이라는데 의견이합해서 십여일전에두남녀는 손을맛붓잡고사랑의나그네길을서울쪽으로향해서 (永登浦)어떤 조용한 산 비탈에 엮어노코 마음편고 살어오든중 가지고온 얼마의돈은 다떠러저서 살림을 아모래도지탱해나갈수 업슴으로 생각다못하여 김복순은 부내한강통(漢江通)어떠한카페─에가서 우숨을팔기로되여 거기서밧는 몃푼안되는수입으로 겨우구차한 살림을부지해오든중이엿는데 자기시골서는 갑작이 변심해서 집을떠난 안해의간곳을 차즈려고남편이시골로 서울로 헤매이며 찻다가 마츰내 오늘 압서적은 곳에서 『웨─트레스』로 애교를 팔고잇는 안해를 차저가지고 그의잘못을 꾸짓고 달래서 이미저질은 허물은 용서할터이니 다시정기픈 넷보금자리로 도라가자 햇스나자기는 죽음지언정 정부박모를바리고는 떠나갈수업다고 버티엿다.

그래도설마하고 달래면 응할줄미덧든 안해의 태도가 뜻밧게 냉정하고 완강한데 분한마음이 폭발한 리강필은 할수업시 안해를 억제로붓들고 소관룡산서에 이르러 전후곡절을 한사정을 설파하고 설유를 해달라고 호소햇다.

그래도 여자는 죽기로하고 못쪼차가겟다고 버티엿스나 그에게는 남편보담도 한때모니즈려야 니즐수업는 사랑하는 딸인 두살먹은 젓먹이가 잇섯다 일상눈압헤선해서 그러치안허도 안타갑게 보고십흔 생각이 각금치밀어오든터이자 남편이『미운나보담사랑하는 그대의딸이 한번그대가 집을나간후로는 밤낫으로 엄마를부르며 울어보채서 참아볼수가업스니 마음을돌려보라』는말을 듯는순간 그는 자기의 그릇됨을 갑작이 뉘웃치는한편 귀여운딸생각이 복밧처옴이라 그만그자리에서 한바탕참회의 눈물을 햇다.

그리하여 깨젓든두남녀의 사이는 천진스러운딸의 신비스러운 힘으로 다시, 마주어짐과함께 온갖방차로 그들은 허무러트린 사랑의 보금자리를 다시차즈러 떠낫다.

運動競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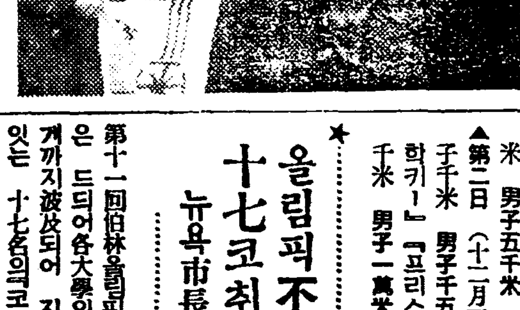
올림픽氷上 送別競技

奉天서廿八、九日

【奉天】 明年二月 獨逸에서 열리는 世界올림픽大會에 出場할 氷上代表一行 三十二名은 久保日本氷上聯盟代表 引率下에 一月三日午後四時半 奉天發列車로 西伯利亞經由 戰地獨逸로 向發케되엿는데 一行은 渡歐에압서 奉天에서 全選手가 集合하야最後의 猛練習을 行한後 來二十八、九日兩日間은 奉天國際링크에서 送別競技會를 開催하기로 되엿는데 滿洲氷上聯盟에서는 그準備에 奔忙中이라는바 同大會에는 『스피─드』『피규어』『아이스·하키─』等의 代表選手外에 在滿一流選手들도 參加케되여 奉天에잇서서 올림픽代表選手를 網羅하야잇슴은 空前의氷上大會인지라 벌서부터 盛況을 豫期하고잇스며 또한歐羅巴遠征을 압둔우리의三勇士金正淵 李聖德 張祐植三君의記錄이 昨年에 比하야 그얼마나 進就되엿는가를 試驗함이 興味의焦點이되여잇다 이날의順序는 다음과가타

▲第一日 (十二月二十八日)午前九時入場式 競技開始 女子五百米 男子五百米 『아이스·하키─』『스피규어』 女子三千米 男子五千米

▲第二日 (十二月二十九日) 女子千米 男子千五百米 『아이스·하키─』『프리스케팅』 女子五千米 男子一萬米



(奉天驛에 나린氷上의三勇士)

올림픽不參을 十七코─취調印

뉴욕市長等合流

第十一回伯林올림픽 參加反對論은 드듸어各大學의코─취들에게까지波及되어 지난三日各州에잇는 十七名의코─취들은『나치스』政府의人種 宗敎에對한 差別待遇는 『스포─츠』精神에 違反됨으로 올림픽大會가伯林에서 開催되는以上 米國選手는參加치말자는理由로 競技公正期成委員會의反對決議에 調印하엿다 前記『코─취』中에는 往年에三回나오림픽大會에 米國陸上競技팀·코─취로써 名聲이놉흔 『폰·매기─』와東部諸州의代表的名코─취로써 널니알니여진『폰·미─한』氏等의이름이 羅列되여잇는것은注目할價値가잇서 其勢力으로보아 다른코─취及一般選手와의影響이 不少할것으로豫測되고잇다

一方 前記競技公正期成委員會는『뉴욕』의 『오─데트리암』講堂에서 演說會를 開催하엿는데 『라과데이아』『뉴욕』市長 『조─지·알·페리─』『뉴욕』州知事 體育聯盟會長 『호니─』氏等의 參加反對演說도잇섯다 이날聽衆은二千餘名이나되엿다한다

朝鮮陸上五傑(7)

一九三五年度 ◇男子部◇

◇投圓盤
1、劉約翰(朝鐵) 四一米一〇
2、金鍾俊(朝鐵) 三七米七三
3、洪永熹(徽文) 三七米三七
4、朴贊奎(普專) 三五米〇二
5、白承旭(養正) 三四米七〇

◇投砲丸
1、劉約翰(朝鐵) 一一米六八
2、李俊甲(總府) 一一米五五
3、李秉文(全南) 一一米一九
4、金鍾俊(朝鐵) 一一米一〇
5、白元輝(平北) 一〇米八一

◇投槍
1、姜榮鎭(慶南) 五一米二七
2、朴重根(全南) 五〇米一〇
3、韓相源(開城) 四五米八〇

◇投鐵槌
1、安泰植(商專) 三七米六
2、劉約翰(朝鐵) 三三米八三
3、李俊甲(總府) 三一米五
4、金鍾煥(鐵道) 廿米二九

◇走幅跳
1、馬鍾國(養正) 六米六〇
2、金建洪(平北) 六米五二
3、韓喆鎬(遞信) 六米四五
4、金應鎬(延專) 六米四〇
5、金源權(海州) 六米三九

◇走高跳
1、黃大峰(京師) 一米七五
1、李章完(黃海) 一米七五
2、張聖壽(養正) 一米六〇

◇棒高跳
1、蘇鎭南(一高) 三米四〇
2、金鵬一(平高) 三米二〇
3、朴榮尙(海高)

◇三段跳
1、裵俊煥(平南) 一四米〇五
2、黃大峰(京師) 一三米六〇
3、馬鍾國(養正) 一三米二八
4、金源權(海州) 一三米一三
5、金應鎬(延專) 一三米〇五

今日의運動

▲柔道=朝鮮中央基督敎 靑年會柔道部 定期昇段進級試合 午後七時 同會館柔道場에서

咳 기침 에

갑갑한천촉 괴로운기침

呼吸器가弱한사람들은 겨정시런『겨울치위』가 다름질처옵니다

危險을第一線에서막어내기爲하야빨이베루만을常備하시라

베루만은舊式品과도달러서全혀中毒性이업고、老人小兒에도安全하고 더구나 心臟保護作用이豐富한新止咳藥입니다

그럼으로、一般기침은勿論特히천촉、百日기침、氣管支炎等의慢性症에 널이 貴用되고잇습니다。

主効

천촉·감기·기침 百日기침·후두가타루·각담·肺結核·기침·목쉰데

中毒注업는鎭咳劑

ベルマン 베루만

定價 一圓二十錢 五十錢 試用三十錢

大阪·東京 丹平商會藥房

各藥店にあり

年次計畫으로써 工產品을增產
自給自足機運濃厚化

朝鮮工業의 躍進에 伴하야 工產品生產에도 年次計畫으로 朝鮮內自給確立의 機運은 濃厚化하야 今回의 產業諸長會議에서도 主要議題로되엇는데 이對象으로되는것에는 麻布等의 製絲陶磁器、木製品、機械類等이 잇다 就中 麻布의 增產은 南朝鮮의大麻、苧麻、西北朝鮮의亞麻栽培의 獎勵와 併行하야 家內工業으로 製織工業을 普及식히어 이에 依한 朝鮮內 需要의 自給自足의 可能性이 만타 이와가티 綿絲 人絹原料의 布帛加工品은 이工業化는 現在 南朝鮮의團子絞가 自給自足의 計畫이 進行되고잇고 陶磁器에對하야서도 自給의 希望이잇다 今回의 工產品年次增產計畫은朝鮮內의 朝鮮產自給運動에 新拍車가될 形勢가 注目된다

裁縫機의輸入 年年히激增
씽거米品을中心으로

朝鮮의 裁縫機需要는 驚異的激增을 示하야 關係者로하야끔 놀래게하고잇다 大部分은 씽거의米品中心인바 累年金額을보면 如左하다 (單位圓)

昭和八年	二七四、七一九
同 九年	一、〇九九、八五七
同 十年	一、三三三、〇六二

即 今年의 輸入額은 前年의 十一割增 百二十二萬三千圓을 增加한터로 朝鮮內의 裁縫機需要激增은 注目된다

產組金融問題로 金組와感情對立

產業組合의 資金融通에 對하야는 財務殖產兩局의 提携로金組聯合會로부터 融通方針을 決定하고 產組는 金融組合에 參加하기로되엇는바 產業組合의 資金運用에 잇서서는 事業資金融通上 金組의 要求와 合致되지

殖銀鰮資金 前年의三倍

殖銀의 漁業資金은 原則으로 公共團體인 漁業組合、水產組合等을 通하야 貸出하고잇는바 今年은 鰮의 豊漁로 資金需要가 激增하야 咸南은 前年의 十五割을 算하야 製品加工資金을 合하면 前年의 三倍를 計上하는 狀態이고 江原、咸北도 大體 이 增加率을 示하고잇슴으로 今年의 貸出은 六百萬圓內外에 達할 豫想으로 全體를 合하면 一千萬圓을 突破하게될것이다 그리고 北海道의 鰮油粕의 暴騰에 依하야 當業者의 利益은 不少하야 殖銀에 對한 償還及資金廻轉은 例年에업시 圓滑을 示하고잇다

內外地石油 配當會議
東京서開催豫定

日本內地、朝鮮一元的으로 實行에 入하야 朝鮮은 特殊事情을 加味하야 統制中의 石油業法의 施行에 當하야 重要問題인 石油가 當問題는 朝鮮은 獨自의 方針으로 進行하기로 되엇는바 右正式決定은 商工省의 內外地石油事務協議會에서 決定하기로 되어 右協議會는 十二月十二日 東京에서 開催할 豫定임으로 總督府로부터는 堂本商工課長이 星子技師를 帶同하고 八日頃發渡東 同會議에 出席할 豫定이다

咸南道肝油를 特產品으로指定
製造、販賣를許可制로하야 全的品質向上을企圖

【元山】咸南道에서는 十二月一日부터 東海岸으로부터 豊富히 產出하는 明太魚及 大口魚의肝油를새로히 特產品으로 指定하고그弊價를 놉히는同時에 品質의 統一을 圖하기로 되엇다한다。

即 特產品의 「렛텔」을 貼付하야 從來 肝商組로부터 粗製舊賣하든것을 防止하며 咸南特產取締規則에 依하야 製造 販賣等을모다 道知事의 認可를엇지 안흐면 取引치못하게 되엇다는데 이로써 雜多한 製品이 品質向上及 統一케되리라한다

耕地面積所有者別
【九年末現在表】

旣報 昭和九年末現在 朝鮮耕地所有別을보면 日本內地人에잇서서는 大地主數가 斷然 만허서 그人數에 잇서는 前年보다 減少되고잇스나 所有地는 增加되고잇스며 朝鮮人에잇서서는 大地主數가 적은 우에 零細所有者까지 漸減의趨勢에잇스며 所有地面積도 減少되엇다。

그러고 土地에의 大資本進出及 그本來蓄積에依하야 四十町步의 大地主가 增加되고잇는 反面에 三十町步以下 一段未滿에 이르기까지의 中小地主가 凋落激減을示하고잇슴은 近年土地所有의 推移에잇서서 特徵이리하겟다

所有面積	昭和九年末現在(人) 日本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計	前年末現在(人) 日本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計	比前年增減(△)
二百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百五十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百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十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十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十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十五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十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十五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十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五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町五段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町五段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町五段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町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段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段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段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段步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段步未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面積(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洋服과 革靴

◇世界一、廉價生產都市인、名古屋製品大宣傳、大衆的大供給 ㊟

販賣코-쓰大革命! 販賣品을全部自家工場에서 製造하야 大衆的으로 大廉賣함으로써 特約店、仲買人、問屋도無用의 癡物이올시다 이런革命的大廉價品을 꼭一次利用하시라

大產=大販=市價의=半額

◇小賣市價의半額以下、絕對責任付、不向返金、換品自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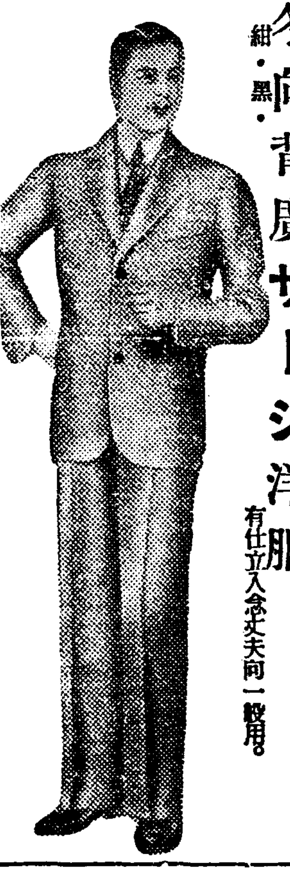
御注文는=手紙로申込하시오 便宜上代金引換으로荷送함
絕對保證=品質耐久絕對保險、必히地方小賣價의半價以下
品替返金=마음에맛지안으면品替返金自由絕對로迷惑케아니함
送料負擔=買主負擔荷造費는當店負擔

紳士向、ウーステツト地、背廣洋服
本年流行의紳士用ウーステツト地最新柄淡色地에杉綾、縞柄、格子柄等 年齡指定하시라
上品 三ツ揃一着 十五圓五十錢 ◎ウーステツト地에アルパカ總裏付
特品 三ツ揃一着 十八圓五十錢 ◎特上ウーステツト에本絹朱子總裏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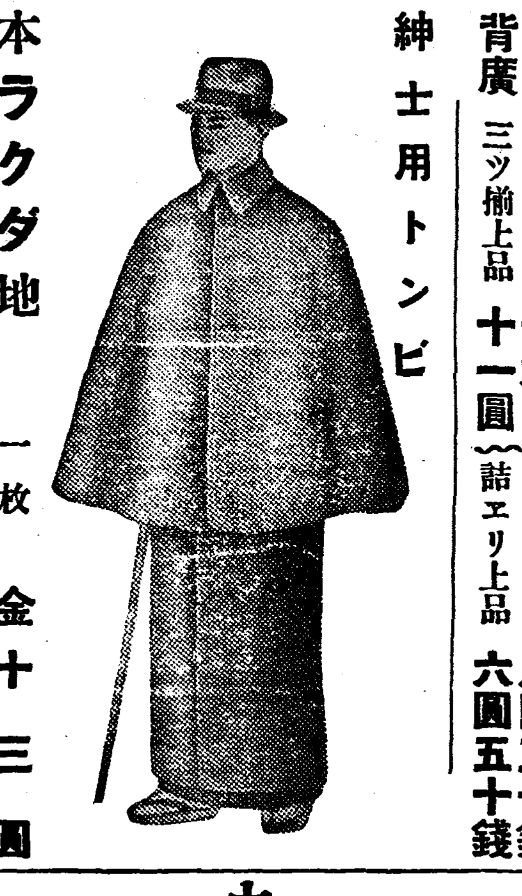
紳士向、最新ピツケ地、背廣洋服
高級中年向으로서小ミジントアゼ柄의優良品이다 裏는アルパカ와絹朱子裏付
特選高級品 三ツ揃一着 十六圓五十錢

紳士用、メルトン地、背廣洋服
羅紗メルトン無地、紺、黑、茶
上品 三ツ揃一着 十一圓
特品 三ツ揃一着 十四圓

縞スコツチ地、背廣洋服
青年、中年向에適應裏는洋朱子總裏付極上等冬向紳士用。
青年中年向 三ツ揃一着 特品 十三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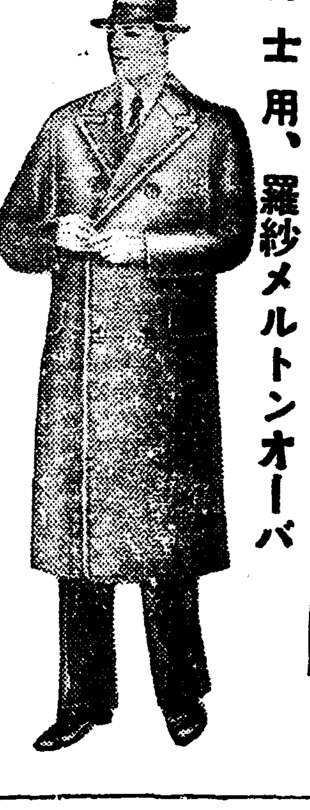


冬向背廣サージ洋服 紺・黑・ 有仕立入念丈夫向一般用。
背廣 三ツ揃特品 十六圓 詰エリ特品 八圓五十錢
背廣 三ツ揃上品 十一圓 詰エリ上品 六圓五十錢



紳士用トンビ
本ラクダ地 一枚 金十三圓
高級ラクダ地 生地는本ラクダ本絹朱子總裏付。 一枚 金二十三圓
本ロスキン地 一枚 金十八圓
高級品으로서極上ロスキン地로서本絹朱子總裏付市價三十圓以上의品인바이는 丈는鯨尺三尺四寸、三尺五寸、三尺六寸同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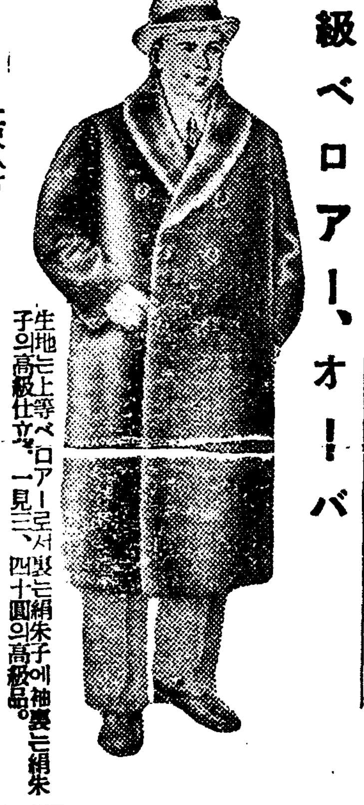
特製、實用向、羅紗オーバ
實用向 生地는極厚地上等羅紗로서裏는新毛朱子上等袖裏綿朱子는가장丈夫向大好評。市價十圓以上品이됨
色合 黑、紺、茶 鯨尺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
片前型 金五圓五十錢
兩前型 金五圓九十錢



紳士用、羅紗メルトンオーバ
生地는極上等メルトン으로洋朱子總裏付袖裏絹朱子付、仕立入念附屬品明付、紳士用의最新型이다
色合 黑、紺、茶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一寸
片前型 金七圓五十錢
兩前型 金七圓九十錢

高級、杉織スコツチ、オーバ
最高級品으로서純毛杉織에新柄入品은鼠、薄茶色等
生地는上等スコツチ로서裏는絹朱子、袖裏絹縞朱子仕立은高等職人의誂向仕立、
色合 霜降、杉綾 茶、鼠
片前型 金九圓五十錢
兩前型 金十圓五十錢

最高級、キロツトラクダ、オーバ
生地는上等キロツトラクダ로裏는本絹朱子袖裏本絹縞朱子仕立은高等職人의誂向仕立。
兩前
色合 紺、黑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
片前型 同値 金十七圓五十錢
兩前型 同値 金十八圓五十錢



高級ベロアー、オーバ
生地는上等ベロアー로서裏는絹朱子에袖裏는絹朱子의高級仕立。一見三、四十圓의高級品。
色合 黑、紺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一寸
片前型 同値 金十三圓八十錢
兩前型 同値 金十四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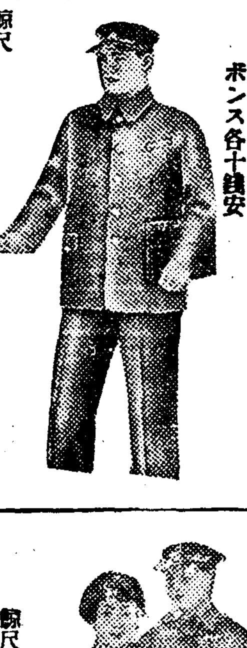
大衆向グランド羅紗オーバ
オーバ襟毛付는一着에三圓八十錢高値
生地는極厚地上等スコツチ羅紗로서、ベンド付最新型仕立入念 大衆向의實用品。色은白、茶、霜降、杉柄等流行品

丈 鯨尺 二尺二寸 一枚兩前 金四圓八十錢

羅紗男學生用オーバ
◎防寒用、色은黑、紺、茶色等。生地는厚地羅紗メルトン兩前總裏付仕立入念
六、七歲用 四圓三十錢? 一、二年用 三、四年用 五、六年用 高等用 一枚値段 三圓六十錢 三圓八十錢 四圓 四圓四十錢 四圓七十錢

羅紗女學生用オーバ
防寒用의極厚地羅紗ベコアー仕立高級品 色은ラクダ、花紺、兩前의總裏付仕立入念
一、二年用 三、四年用 五、六年用 女學生用 同 一枚値段 四圓三十錢 四圓六十錢 四圓九十錢 五圓五十錢 六圓十錢

最新流行 オペラ、マント
本品은女學生間에非常한歡迎을밧는品인으로서꼭模範以上의實行을나타내는實用的女學生マント로서貴店의店頭에推奬할만한것이올시다
女學生用 同 同 同 三圓八十錢 四圓四十錢 四圓八十錢 五圓六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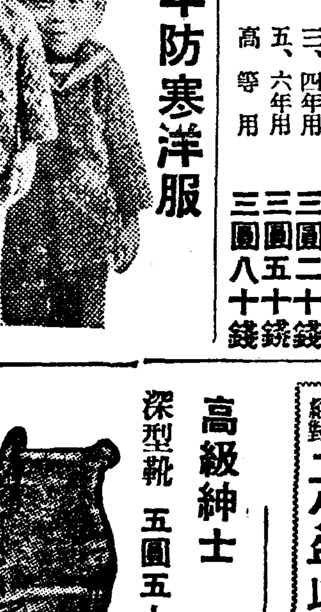
黑羅紗、學生用洋服
◎生地는極上等羅紗로서、朱子裏付金ボタン付仕立入念
◎小學生用의丈夫向、長ズボン付値段이비쌈ズボンス各十錢安
一、二年生用 三、四年生用 五、六年生用 三圓七十錢 四圓 四圓三十錢 四圓八十錢

黑羅紗外套 (金釦付) 上等厚地羅紗兩前丈夫向
尺寸 一二尺 三尺 四尺 五尺 頭巾付一枚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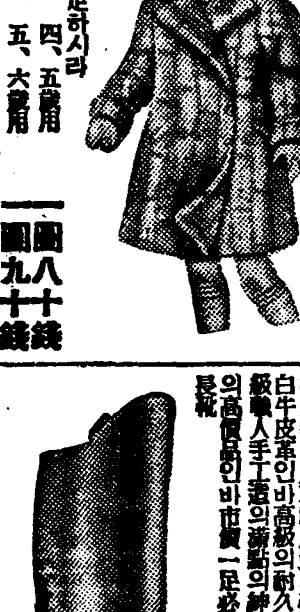
女學生服 各學校指定型 水兵型スカート付

純毛セール厚地 女學生洋服 スカート付一着値段
一、二年用 三、四年用 五、六年用 女學生用 三圓 三圓 三圓四十錢 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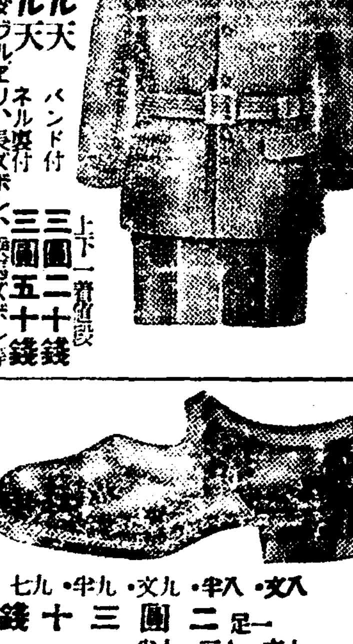
小學用羅紗マント
◎上等厚地羅紗로서色은エビ茶系、ラッダ等頭巾付
一、二年用 三、四年用 五、六年用 高等用 頭巾付一枚値 三圓 三圓二十錢 三圓五十錢 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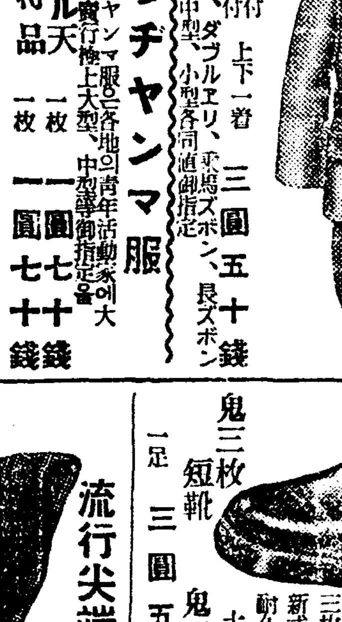
幼年防寒洋服
珍柄入高級ブロック地 水兵型 一枚 一圓八十錢 折衿型 一枚 一圓八十錢
大型一尺二寸男兒用。六、七歲用 小型一尺一寸、四、五歲用어느것이든지同値御指定。



防寒、幼男女オーバ
一千枚限、大特賣極厚地高級品
男女向=御指定하시라 四尺 五尺 六尺 四、五歲用 五、六歲用 六、七歲用 一圓八十錢 一圓九十錢 二圓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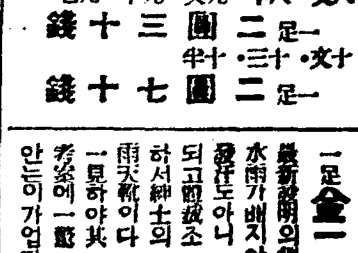
防寒コール天洋服
가장튼튼하고丈夫로된實用品
鬼コール天 絹コール天 バンド付 ネル裏付 ◎折エリ、ダブルエリ、長ズボン、乘馬ズボン等 大型、中型、色黑茶出어느것이든지同値
上下一着値段 三圓二十錢 三圓五十錢



防寒用別珍洋服 極厚地別珍、堅牢하고防寒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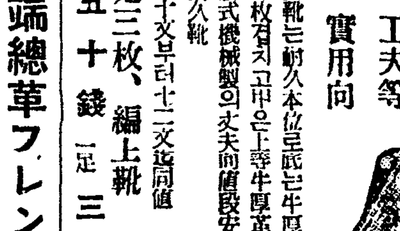
バンド付 ネル裏付 上下一着 三圓五十錢 ◎折エリ、ダブルエリ、乘馬ズボン、長ズボン 大型、中型、小型各同値御指定

防寒チヤンマ服
最新流行 チヤンマ服은各地의青年活動家에게大實行極上大型、中型等御指定을
絹コール天 別珍特品 一枚 一圓七十錢 一枚 一圓七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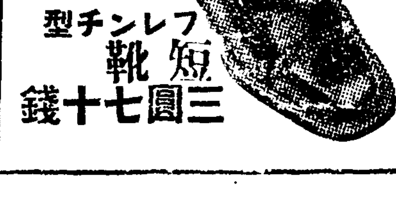


女學用總革靴
八文・九文・九文半・十文 一足 二圓二十錢 八文半・九文半・十文三 一足 二圓七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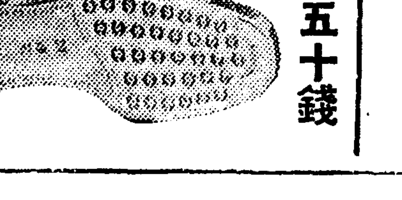
(化學의精華、人巧의妙) 晴雨經濟靴
最新發明 一足金二圓
最新發明의絕對로水雨가배지안코 耐久力도아니 되고값廉하고 紳士의雨天靴이다 一見하야其 考察에一驚 안는이가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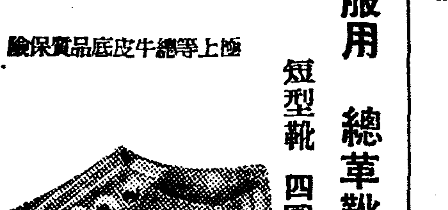
鬼三枚底 總革學生靴
學生 青年 工夫等 實用向
此靴는耐久本位로底는牛厚革三枚정지고甲은上等牛厚革으로 最新式機械製의丈夫한値段安經濟的耐久靴
十文부터十二文迄同値
鬼三枚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總革フレンチ型
本品은絕對로機械를使用치안코 全部手製 上等總皮底
フレンチ型 編上靴 四圓二十錢
フレンチ型 短靴 三圓七十錢



青年訓練總革靴 堅牢無比 一足 三圓五十錢
此訓練靴는軍隊에서도 갓흔法으로 製式原料는 甲部는牛厚皮 軍隊靴와 底는 上等牛皮 耐久的이고 數百個의 金鋲을박고 底에鐵金具를 붓치엿스니 軍隊靴以上의 力이 잇습니다
耐久絕對 二ケ年以上
上等總黑皮製



極上等總牛皮底品質保險

高級紳士 禮服用 總革靴
高級職人의手製로서原料等은 모다最良品을選擇한것이며 十文半부터十一文迄同値 十一文半以上의 牛까지 同價
深型靴 五圓五十錢
短型靴 四圓五十錢
ボタン付 先帕來 エナメル付

高級、總皮革、大長靴
極上等牛皮革厚皮로서靴의內裏도全部白牛皮革인바高級의耐久品。製法은高級職人手工造의逸品의紳士用、乘馬用의高價品인바市價一足必二十五圓以上長靴

總牛皮革長靴 一足 九圓五十錢

名古屋市東區千種町 (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 販賣部
製造元直販 電話東五二一四【振替名古屋一七六】

農村疲弊深刻으로 高利債逐年增加

咸南道內九月末現在統計로 一千六萬餘圓의巨額

【咸興】 함남도지방과의 집계에 의하면 금년구월말현재 도내에서 개인고리대금업자에게 부동산등담보저당(抵當)하고 대출한 금액은 일천륙만사천여원의 거액에 달하는데 이를소화륙년도의 오백오십만사천원에비하면 약이배나 격증되엿스며 해마다 가속도로격증하고잇는 한심한 현상을나타내고잇다는데 최근 오개년간의통계로보면 다음과갓다

昭和六年	五五〇四、〇〇〇圓
同 七年	六〇〇二、〇〇〇
同 八年	七三二七、〇〇〇
同 九年	七一三二、〇〇〇
同 十年	一〇六六四、〇〇〇 (九月末)

咸南茂山郡에 砂糖場設置

【仁川】 지난오일인천세관에도착된정보에의하면 경성부수하정(京城府水下町) 신곡(神谷)농장주신곡종팔(神谷宗八)이 소화십일년도부터 십년간 계획으로 무산군(茂山郡) 삼장면(三長面) 량면에 총면적이 일만일천삼백구십륙정보에 경작면적 이천정보로 사탕수수를 재배하야 원료가 매년평균 팔천만근、사탕으로 일천구백이십만근(가격 구십륙만원)을 생산할 예정이라는바 현재 동지역에는 팔십삼호에 불과하나 명춘안으로 천여호를 이민케하야 대규모착수를 하리라는바 이로써 북조선발전의 깃분 소식의 하나이라 한다

發展途上仁川에 無家戶가八千餘 全戶數의半部占領

【仁川】 엄동(嚴冬)을 당하야집업는설움도 큰설움에 하나이다 만근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잇는 인천의 사회상을보건대 전인천인구 팔만삼천여명에 호수 일만륙천오백사십호로 수짜로서는 가장 조흔 현상을 보여주고 잇는듯하나 그리면을 조사하건데 총호수 일만륙천오백사십호에 과세자는 불과칠천칠백십오호이라 이로써본다면 집업는가족이 팔천팔백이십오호에달하야 전인천의 반수이상을 점하고잇는 참상이라한다

光州火災 損害萬餘圓

【光州支局特電】 륙일오전다섯시광주부본정(光州府本町)오정목이십구번지에서 불이이러나 부근사호를 전소하엿는데 손해는일만여원이요 원인은 광주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亞鉛絲大窃盜團 三名을檢擧

【新義州】 태천군 남면 대흥동(泰川郡南面大興洞) 김원렬(金圓烈)(三七) 동군강서면 상평동(江西面上坪洞) 백정률(白亭律)(三〇) 귀성군 방현면발산동(龜城郡方峴面鉢山洞) 김창준(金昌俊)(三二) 등 세명은 지난이십오일 태천군태천면 서부동(泰川郡泰川面西部洞) 재산가 배창섭(裵昌燮)에게 아연사(亞鉛絲) 륙관오백메 시가 일천오백원 가량되는것을 륙천원에 팔려고 교섭하는것을 태천서에서 탐지하여 조사한결과 전긔세명은 창성대유동(昌城大楡洞) 금광회사에서 아연사 약팔중(六貫五百匁)을 수회에 이르러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여 □난사일 전긔일단을 검거하는 동시에 태천군강서면 사평동 산중에 감추어두엇든현물로 제다몰수하엿다한다

金忠植氏表彰式

【康津】 전남 강진 김충식(金忠植)씨는 조선뢰예방협회(朝鮮癩豫防協會)에 일만이천원이라는 거액을기부한 사실이 잇섯는바 금번내각상훈국으로부터 감수포장(紺綬褒章)이 전달되여 지난 사일에 강진군청회의실에서 관민오십여명의 렬석하에 포장전달식이 성대히 거행되엿다는데 씨는 압흐로 더욱 공익사업에진력하리라 한다

李晟國氏特志 開豊郡下面民爲해 架橋費六千圓喜捨

【仁川】 인천개풍(開豊)상회주인 리성국(李晟國)씨는 그선친 리규옥(李珪鈺)씨유지를밧아 각종 공사업에 만흔노력을 하고잇슴은 일반이 공인하는바와 갓거니와 금일 그의 고향인 개풍군(開豊郡) 대성면(大聖面)에서 광덕면(光德面)으로통하는 강(江)이잇서 매년장마기에는 그륙종선 흑은 도보로 건너다가 희생되는 인명이 만흠을 유감으로 생각하는바 금번 전기 양면 발기로 가교(架橋)코자하나 그경비일만이천원의 출처가 업서 우려중에잇는바 금번 리씨로부터 총공비의 절반 륙천원을 희사하야 면민일동은 씨의 특지를 감격하기마지안는다한다

新屯公普開校式

【利川】 만삼년동안 숙제로되여잇든 리천군신둔면 신둔공립보통학교(新屯面新屯公立普通學校)는 그간 면중앙인수광리(水廣里)에다가교사를 건축하든바 지난십이일일 오전십일시에 동교사내에서 성대한 개교식이 잇섯다한다

金州學院에서 創立記念學藝會

【通川】 통천군통천금주학원(金州學院)에서는 지난 사일하오륙시부터 신축된 대강당에서 창립칠주년 기념학예회(學藝會)를 원장 김선득(金璿得)씨사회하에 개최하엿다는데 관람객이 수삼백명에 달하야 공전의 대성황을 일우엇다고한다

一年間煙草賣上高 一百二十五萬餘圓 扶餘販賣所管內統計

【扶餘】 지난구년도하반기로십년도상반기까지의 일년간 연초판매고는 실로 일백이십오만자천원이나되는바 이것을 판매소관내(扶餘鴻山外山內山玉山九龍忠化場岩面)의 인구별로 나노아보면 매인당일원사십오전이라한다 그리고 관내연초소매인은 륙십일인이라는데 일년간 매상고는 사백이십원에 달하며 그중에도 관하각면중 판매고가 제일만흔면은홍산면(鴻山面)이라 한다

昭和九年度管內煙草販賣高

一人平均額 一圓四十五錢弱

同 煙草消費量

一人平均 九七五瓦

永登浦의通信量 四週間에八萬餘通으로 比前年同期十倍增加

【永登浦】 종(縱)으로 횡(橫)으로 비약적발전을 보고잇는 신흥공업도시 영등포의 통신량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금년시월일일부터 동이십팔일까지 사주간의 통계를 내여본다면

	發送	配達
郵便 (前年)	[illegible]	[illegible]
郵便 (本年)	[illegible]	[illegible]
小包 (前年)	[illegible]	[illegible]
小包 (本年)	[illegible]	[illegible]
書留 (前年)	[illegible]	[illegible]
書留 (本年)	[illegible]	[illegible]

이상과갓치 그합계에 잇서서전년동긔분 팔천오백륙십일통에비하야 본년은 팔만팔천구백십육통이란 일약 십배의 통신량이 격증하야 영등포의 발전상을넉넉히 말하고 잇다한다

群小製肥業者 赤字로大困境

【通川】 한때에 조흔 경기를 연출하든 정어리(鰮魚)공장사업도 결산긔에는 적자(赤字)사태를 맛나고야말엇다 통천군 고저항(庫底港)과 답전면 치궁리(致弓里)에 금년내에 설치된 정어리공장이 사오십개소를 초과하므로 일반 공장업자는 아무 성산도 업시 막대한 자금을 던저가면서 남보다저 정어리를 만히 사서 기름짜려고 애쓰든 남어지 사업을 필하고나서 결산을 하여보면 적어도 한공장에서 손해본것이 수천원식 된다고 한다 손해본 원인은 제일 천긔가 불순하야 정어리 『까스』를 전부 썩인것이고 둘재로는 경험이 업시 정어리를 만히 사기만하고 밋처 기름을 짜지못하야 기름착출량이 준것과 공장사용물품을 고가로 구입하얏스며 사용인남급 우차임(牛車賃)을 만히 지불한 관계라고 한다 여하든 명년까지 사업을 계속할 사람은 적으리라고 한다

市場發展策으로 南市繁榮會組織 四日市民大會에서

【南川】 경의선 남천(京義線南川)은 황해도중앙지대로 현재 륙천여의 인구를 가진지방도시인바 발전의 긔운은날로농후하여가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직적단체가 업서 크게유감이든바 당지 유지 신원희(申元熙)오례제(吳禮濟)의 수씨의 발긔로 지난 사일오후팔시보산면 사무소(寶山面事務所)회의실에서 남천시민대회(南川市民大會)를 렬시 의장 신원희(申元熙)씨 사회로 개최하엿다 남천에 잇서서의 시민대회는 처음인마치 되여 추의여지업시 대만원이 되엿다 못 대성황을 일우엇다 여러가지로 지방발전책을 토의한 결과 남천번영회(南川繁榮會)를조직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가결되여 즉석에서 남천번영회 창립총회(創立總會)로 명칭을 변경한후 좌긔와가티 역원을 선거하고 발전에대한 모든 임무를 일임한후 동오후 십시반에 무사폐회하엿다

◇役員氏名

會長 嚴仲燮 副會長 井內九郞 申元熙 評議員 吳禮濟 閔鳳植 林光曦 崔學曦外二十四名

大資本家에눌려 群小木材商悲鳴 木材需要激增으로簇生한小商 早晩間그對策을講究?

【興南】 흥남읍 일원에는 금춘부터 조질회사방계회사 건축경기로 이에수요되는 목재를 공급코저 목재상이 늘기를 무려십여처이엿다 그러나 저들은대부분이 넉넉지못한 자본으로 그날그날을 꿰매기도어려운중수마을 당하게되엿다 이에깨다른바 메예상인은 방금 이 구제책을 필사적로력을 기우리고 잇스나 도저히 묘한방책이 나오지아니하고 대자본가의 경영에 눌리워 조선인영여진에 말못할비운이 당도하리라하며 년말을 리용하여 이구제책강구로 무슨모임이 잇스리라고한다

停電頻繁으로非難

【南原】 남원읍내 전등은 대흥전긔회사(大興電氣會社)치를 쓰고잇는데 종내에도 고장이 빈번함으로 일반수요자측에서 비난이 자자하든중 지난달 이십팔일밤부터 금월삼일까지 밤열시쯤지나서 반다시 입이분동안 정전이되야 암흑세계를 맨들어 버릴뿐아니라 초저녁에도 전등이 꺼젓다 써젓다함으로 상점가튼데서는 흔히 물건을 매매하다가 곤난을 밧는다하며 『람프』와 양초를 준비한다는등 실노 피해가 막심하다고 한다

頌德碑問題 告訴再燃

【咸興】 북조선유일의 거부이든 함흥부황금정삼정목 한모(韓某)는 약칠십여년전 당시관찰사 림한수(林翰洙)의선정을 영원히 송덕하기위하여 당시 함흥시내상민들이서로거금하야 세워든 비석(碑石)을자기과가 보관하게되엇슴을 긔화로녀여 그유서깁흔비석을 개각(改刻)하여 자기선조의묘에 건립하엿다고 함흥상민대표 석정점(石鼎漸)이가 함흥서에 고소를제긔하여 세상의 주목을끌게되엿든바 그후동사건은 함흥법원 검사국에서 일단긔소유예처분을 하여 일시단락을 짓게 되엿는데 다시 관찰사 림한수(林翰洙)의 직손 충북에 거주하고잇든 림도정(林道政)으로부터 전긔 한씨를 상대로 경성지방법원에 횡령죄로 고소하게 되여 재차 경향간의 절대한주목을 집중식히고잇슨바 돌연지난삼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한시은의 장남한유끈(韓裕□)의 구인장이와서 즉시함흥서원의 출동으로 구인되여 사일오전여섯시 오십분 함흥발렬차로경성에 호송되엿다는데 사건의 진전에 비상한 주목을집중식히고잇다한다

鴨江短信

◇……삭주(朔州)군하에 사는 의사 박모(朴某)는 결혼하면서 이천원짜리 토지를 주마하고 당지 황복녀(黃福女)와 약혼한후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안코 『돈』도 주지안코잇다가 위약금지불소송을 당하엿다고

◇……지난 이십팔일이래 평북 창성(昌城)대안에 토병、반만군、마적등이 나타나서 폭행강탈이 번번하므로 국경경비대는 조선내에 침입할가바 비상한 경계망을펴고밤、낫을 가리지안코 경계중이라고

◇……신의주부내 조선인거리 카페-에서는 『사라리만』의 『뽀나스』경긔를 바라고 경성 평양 강계등지로부터 미인녀급(女給)을 구입과 서비스방법연구에 열중이라고

賭租契約을無視 半分制를强要 小作人側憤慨不應

【金海】 소작계약서에는 소작인에게 세조(稅租)를 작정하여잇는것도 불고 하고 금년풍년을 리유로 단반분을한다는 무리한 지주가 김해군하에 잇다=조사한바에 의하면 경성모처에잇는 최경자(崔慶子)(假名)는 작년에 김해군 녹산면(金海郡菉山面)등지에 토지삼백두락을 대수하여 오십여명의 소작인들에게도조제로계약하엿슴으로 작인들은 천신만고로 비료를 하여왓든바 다행히 금년에 풍년이되니 전긔지주는 단으로 반분하는것이리로운줄알고 작인에게 단으로 반분하기를요구하는바 작인들은 무리한지주의 요구를주지안켓다고 만약 만일요구를 계속한때는 비료갑도지주측에서 반을 부담하여달라는 청구를 지난 삼일에하엿스나 지주측에서는 아직 회답이 업다한다

小作人朴某談 지주가 계약을 리행치안코 금년은 풍년이라고 단을반분하자하니 세상에 이런 어굴한일이 잇겟소 나는 삼두락 소작하는대만약단반분을 하게되면 한섬(一石)이나 손해가 잇습니다운운

仁川府外서 트럭과牛車衝突 車夫가重傷

【仁川】 안성군이죽면 죽산리(安城郡二竹面竹山里) 사백삼십오번지 량재원(梁在元)(三□)양조장의 자가용『트럭』(京五〇六二號)으로 량해봉(梁海鳳)(二五)이 가운전하가 인천으로 오든도중 시외장의리(長意里)에서 다주면 구월리(多朱面九月里) 최사일(崔士日)의우차와충돌하얏다는데 차부최씨는 중상을입어부내 서야입(西野入)의원에 입원치료중으로 중상이엿다한다

全北道內의免稅額 八萬六千餘圓突破 災害面積은一萬餘町步

【全州】 금년도 한해로 인하야 전북도내 면세지(免稅地)조사는 최근일단락을 고하엿다는데 이제 면세총면적을 본다면 일만륙천이백 팔십팔정보에 팔만륙천칠백 칠십일원의 면세액에달한다는데 이제 도내 피해면세된 각세무서 별로보면 다음과갓다

稅務署名	面積	稅額
群山	[illegible]	[illegible]
全州	[illegible]	[illegible]
裡里	[illegible]	[illegible]
金堤	[illegible]	[illegible]
井邑	[illegible]	[illegible]
錦山	[illegible]	[illegible]

長興普校移築에 金八百圓喜捨 高東錫氏美擧

【長興】 장흥보교는 부지가 협소하고 교사가 부패하야 금번 개축하기로 결정한바 장흥면평화리(長興面平化里) 고동석(高東錫)씨는 씨가 오백여원의 토지를 학교부지로 제공하고 현금이백오십원을 기부하엿다는데장흥면민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咸興府最終府會

【咸興】 함흥부금년 최종부회는 오는십오 륙량일간 함흥부청회의실에서 개회하기로 결정되엿다한다

釜山府市區改正 總豫算額十萬四千圓으로 明年三月頃에는竣工

【釜山】 조선 제이의 상공도시인 부산항의 장래대약진을것을 예상하고 부당국에서는 도시계획령이 실시되기전에 시구 개정에 착수하던바 금년도에 실시할 시구개정공사비는 총예산 십만사천원을 투하야 대청정(大廳町) 영주정(瀛州町)간의 괴설공사분외에 목하 착공중인수정정(水晶町)초량정(草梁町)의 이개소급 용지매수중인 초장정(草場町)、보수정(寶水町)、대신정(大新町)보정(本町)、대창정(大倉町)범일정(凡一町)、목도(牧之島) 등 합계십개소인데 방금미완성의분은 용지매수에 전력을 경주하고잇서 명년삼월경까지는공사를완성식힐예정으로노력중이라한다

誘引에가지가지

【元山】 대중의 빈궁화에 따라세상인심은 점차 험악해가는 징후가 농후함은 누구나 잘 아는사실이거니와 이에 수반하야 험악한세상을 여실히 반영하는 감언리설로 촌처녀를 유인하야 도에넘는 친절을 다해주고는 나중에음식점에 팔아서주머니를 채우는자가 늘어가는데 이러한 유인사건이 원산서에도이지음 늘어간다고한다 더욱히그 유괴 방법도 종래와가티 협박가튼수단은 쓰지안코 의리적연

總人口八萬三千에 勞働者三萬五千 比前年四千餘增加

【仁川】 약진하는인천은 과연 일본내지대자본의공장이 꼬리를물고 진출함을따라 공장가는과연 놀랄만한 발전을 보이고잇는반면에 증가되는것은 로동자들이다 지난십월일일 국세조사에의하면 전인구팔만사천여명에 로동자만이 이만오천칠백여명으로 전인구의 삼분지일에 해당하다 그런나 작년말 인구조사에비하면 사천여명이 증가되엿는데 이는 일방(日紡)염색(染色)등공장이조업개시한관계라고한다

染病都市興南에 又復天然痘猖獗 每日三四名患者續出

【興南】 흥남읍 일원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고잇스며 그외에 뇌막염도 류행하고잇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또무서운 천연두가 성행하고잇서 읍당국과 경찰서에서 방역에 필사적노력을 하고잇다 매일평균삼사명의 천연두환자가 발생하고잇는바 압흐로 엄동에 더욱더 경계와 주의가 필요할것이며 경찰에서는 일일히 집집마다 검사를하야 다시히 방역에주력하고잇다한다

過冬조차憂慮되는 釜山府內의細窮民 一萬七千餘名을突破

【釜山】 부산부의 인구는 지난 십월일일에 시행한 국세조사에 의하면 십팔만이란 놀랄만한수자이엿서 그야말로 조선 제이의 상공도시로서 장래의 비약을 예상한 바인데 요지음 그 국세조사의 상세한 내부를 해부하야보건데 극도의 빈궁으로 이치운 겨울을 견될수업는 세궁민이 무려 삼천사백여호에인구 약일만칠천여명이라한다 물론 이웃자는 그야말로 문자그대로의 참담한 상태에 잇는세궁민이고 이외에도 그날그날을 근근이 보내는 세궁민이 약칠만여명되다한다 그런데 부당국에서는 재원부족이라는 리유로 그들을 위한 구제사업은 아무런계획도업시 방관만하고잇다하니 그들의 장래가 걱정된다한다 이제 국세민의 내역을 수자로 적어본다면 다음과갓다

細民朝鮮人二六八六戶 一四二五〇人 日本內地人二三三戶 五六八人 窮民朝鮮人六三三戶 二九七一八人 合計戶數 三三四一戶 人口一七二七七人

16 미리通信

水原 남편의 눈물피하야 도망하려고 성냥을 켜다가 불이나서 방화죄로 취조를 밧고잇는 녀자가잇다 그는수원군 양감면정문리(水原郡楊甘面正門里)리을선(李乙仙)의처 김씨(三二)로서 집이너무도 가난함으로 좀더화려한 생활을동경하야 도망할 준비를하다가 남편이 잠이들엇는가 엿보고서성냥을 켜다가 불이나서 필경수원경찰서에 체포취조한결과 경찰범 위반으로 구류에처하얏다한다

永登浦 시흥군 서면 철산리(始興郡西面鐵山里)구장 구연웅(具然雄)씨댁에는면칠전밤중에 어떤청년신사 한명이 차저와서 취침중의 집안사람을 깨워가지고 자기는 경긔도경찰부형사인대 범인을 수색하려왓다가 길을일코 밤도깁허서 갈수가 업스니 저녁밥을 좀지어달라고 교만한태도로 강청함으로 구장은 그자의 너무 무례하고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품고 즉시 소할 영등포 경찰서에 계출하얏슴으로 동서형사대가급행조사한결과 그자는 경북영일군동해면림곡리(迎日郡東海面林谷里) 이백칠십일번지 김영오(金永五)(二一)라는자로 너무나배가곱허서 저녁한끼를 어더먹고저 그와갓치 잠간가형사로 꿈여가지고 속여보려든것이 탈로가된것이라는대 여죄가 상당이 잇스리라고 목하엄중취조중이라고한다

鏡城 점으러가는 세밀의 숙조한 함북이 중북에 흐르는 밤의 요새지대。경성에서는 아직도 동졸모를 쓴 중학생들이 탈선적 경향이 만타는바 그실례를드러 지방학부형들의 관심을 일으키는동시에。그런생도의 반성을 촉한다ー탐문한바에 의하면 읍내 모중등학교의 삼사학년 생도들은 주색에 밤을 보내며 학업에 게을너 자연성적에도 영향이 크다는데 지난 십일월중에도 정학자가 네명에 달하여 경찰과 학교당국자의 엄중한 처벌과 부단한 내사를계속하고잇다한다

裡里 요지음 리리유지측(裡里有志側)에서는 금마고적보존회(金馬古跡保存會)를 조직할 목적으로 우선 현지를 답승한다음 좌담회를 열고 여러가지로 의견을 종합한 남어지 불원에 고적보존회가 실현되리라는바 금마고적(金馬古跡)은약 이천년전 마한(馬韓)시대에 남겨노흔 고적이 수처에달하야 조선고적사상에 적지안흔 사기가 남어잇거니와 이제 익산군 교육회(益山郡敎育會)에서는 금마고적안내(金馬古跡案內)를 발간하야 세상에 널리소개하는 등 또다시 리리읍반유지측에서는고적보존회를 조직하야 철저한소개와 선전을 할예정으로 모든 준비에 분망중이라고한다

平壤 【平壤】 이일오후여덜시부터 부내 금천대좌(金千代座)에서는경성예기권번(京城藝妓券番)기생들을 불러다가 연주회(演奏會)를 출연하든중 동아홉시삼십분경부내 적옥회관(赤玉會館) 녀급들의 특별출연장면을 조선사진관(朝鮮寫眞館)기사 강만칠(姜萬七)(二七)이가 촬영코저 『매네슘』을 사용한후 『매네슘』 유리병에 인화되여 굉장한 음향과가티 폭발하여 사진사 강만칠은 안면과 손에 대화상과 렵상을 당햇고 부근에섯든 기생네명도 아릿다운 얼골을 다치어 비명과 아울러 놀래인 초만원의 관중은 무대우에와 극장박그로 뛰어오르고 나리어 연극도 일시중지되는대수라장을일우엇스나부상자를 부근 병원에운반하여간후다시연극은계속되엿다

公州 지난 삼십일 오전십이시경에 충남공주군 계룡면 경천리(公州郡鷄龍面敬天里)에 거주하는 신봉철(申鳳徹)의 안해 김성녀(金姓女)(二一)는 임신 오개월이된 손부로 무슨원한을 품엇슴인지 안식구가 출타한틈을 타서 다량의서술을먹고 무참이도목숨을 끈어버렷다 한다

尙州 【尙州】 경북상주읍남정리(南町里)에서 고기장사를하고잇든 박준희(朴準熙)집에서 지난오일새벽세시경에 불이나서 박의부친갑철(末哲)이라는로인이 무참히소사하엿다한다

地方人事

◆田島泰秀(宜川郡守) 今般定州郡守로榮轉人事次本報宜川支局來訪

全州群山間 道路鋪裝 二十萬圓으로

【全州】 전북도 토목과에서는도내중요도로가운데 특히 교통량이 제일만흔 전군도로(全群道路)를 삼개년 계속사업으로 총공비 삼십삼만원을드려 포장공사를 시작하고저 방금제일년도분을 래년도예산에 요구할모양이라는데 전군도로가 끗이나면제이단으로 전주 남원간도로포장을 계획하리라는데 멀지안흔장래에 공사가 필할것으로 전북도로는 문자그대로 문화도로가 되리라한다

論山

▲時日 十二月十日下午六時半

▲場所 論山劇場

讀者慰安 經濟講演及野談大會

▲講士 本報主筆 徐椿先生 野談家 申鼎言先生

◇主催 朝鮮日報社論山支局

新義州

家庭婦人講習會

▲期日 自十二月九日 至同十一年三月末日

▲場所 第二禮拜堂下層

◇主催 新義州敎會勉勵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新義州支局

火賊 林巨正 (231)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六의九

마전 소디명까지 알엇느냐고 황면왕동이가 물으니 젊은주인은 고개를 가로흔들면서

『소지명은 알지못햇소』

하고 대답하얏다

『다시한번 자세히 알어봐줄수 업겟나』

『알어봐달라구 부탁은 곳할수 잇지만 그회보를 듯자면 보름이될지 한달이될지 몰으지요』

『엇재 그러케 오래 걸릴까』

『내가 부탁할사람이 찰방께가서 그런말을 물어보자면 물어볼만한 계제를 봐야하니까 자연 오래걸릴것아니오』

『그러케 오래걸릴래선 부탁할것두업네 내일 읍네 들어가서 알어봐달라지』

『읍네 들어가서 누구더러 알어바달라실라우』

『이방보구 말해볼라네』

『그런건 이방더러 말햇자 소용업소 이방이 찰방한테는 길이 잘 닷지안소』

『아니 강음원님한테 알어봐달랄라구하네』

『원님이 알른지두 몰으구 알기로소니 이방으루서 원님더러 그런말을 물어보기가 어되쉽소』

『이방은 몰으까』

『몰으구말구 마전싸람이줄두 몰으리다』

관상쟁이란것이 유표하야 마전읍에 가서 물어보면 그의사는 소지명을 곳 알수잇스려니 생각하야 황면왕동이는 강음읍내를 들어가지안코 마전으로 직행할 맘을 먹엇다

이튿날 아침후에 황면왕동이가 금교서 떠나서 개성、장단 적성땅을 지나서 마전읍에를 오니 해가 겨우 점심대쯤되엿섯다 읍내바닥으로 돌아다니다가 그중의 좀정갈스러워보이는 술집에 들어가안저서 술을 사먹으며 주인기집더러 말을 물어보앗다

『이골에 유명한 관상쟁이가 잇다는데 그관상쟁이가 어느동리 사는지 아우』

『나는 장단서 살다가 이리온제가 얼마안돼서 여기일을 잘 몰라요』

박게섯든 사내하나가

『여보 관상쟁이는 왜 찻소 상을 보러왓소』

하고 물어서 황면왕동이가

『네 그럿소』

하고 대답하얏다

『여기 달불이란데 상잘보는이가 하나 잇습네다』

『그가 성이 무어요』

『조씨요』

황면왕동이가 속으로

『올타 됏다』

생각하며 달불가는길을 물엇다 달불은 읍에서 지척이라 술집에서 나서는길로 바로 차저나왓다 상보는 조씨의집이 동내아침에잇는데 초가일망정 제법 름직하얏다 황면왕동이가 삽작밧게서 주인을 차즈니 한참만에 아이놈하나가 안에서 나와서

『샌님 집에 안기시요』

하고 말하얏다

『어듸 가섯느냐』

『풀무골잔치에 가섯소』

『풀무골이란데가 예서 머냐 가까우냐』

『풀무골이 여기서 가찹소』

『그럼 곳 오시겟구나』

『저녁전에 오시겟지요』

『야 너의대샌님 어듸서 데려오신사람이잇지』

『샌님이 데려오신사람이 누구요』

『너만한아이하나하구 그애아버지하구 데려오섯지』

『난 몰라요』

『너는 못봣느냐』

『난 몰라요』

『몰으거든 고만둬라 잇다가 너의샌님보이러 다시오마』

황면왕동이가 달불동네와 동네근처로 바장이며 해를 보내고 이집저집에서 저녁연괴가일어날때 조씨의집에 다시 와서 물어본즉 주인이 아직도 오지아니하야 그집아페서 오락가락하는데 먼저보든 아이놈이어듸를 갓다오면서

『여보시요 나좀보시요』

하고 소리를 질럿다

『나를 불럿느냐』

『녜샌님이 풀무골서 작구오시기가 쉽답되다 여기서 기다리지말구 갓다가 내일아침에오시우』

『풀무골서 사람이 왓느냐』

『샌님하구 가치갓든냥반이 한분오섯습니다』

『내가 난데서 온사람이라 갈데가업스니 너의집에서 좀자야겟다』

『마나님 말을 들어봐야지요』

하고 아이놈이 집안으로 들어가더니 곳 돌우나와서

『마나님이 안된다구합드다 난 공연이 야단을 만낫소』

하고 볼메인소리로 말하얏다

황면왕동이가 읍에 들어가서 자고나오라고 생각하다가 읍에 들어가도 과객노릇을 할바에는 이동네 어느집에 가서하룻밤을 자자고해보리라 고처 생각하고 동네부판으로 나려왓다